

불자는 자기 이익 쫓아 일희일비하면 안 돼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조계종립 동국대가 최근 약학대를 유지했다. 동국대 교문 입구와 교정 곳곳에는 약학대 유지에 자축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로스쿨 유지에 탈락했을 때의 가라앉았던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종단도 대학도 “동국대의 약학대 유지는 상생과 화합의 결과”라며 자축하는 분위기가 한창인 때, 로스쿨에 탈락했던 때를 생각하는 것은 주책일까?

3월 어느 날, 나그네는 동국대를 찾았다. 동국대가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했을 때,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목청 높였던 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안배에 의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했던 동국대를 위해 맨 앞에서 목소리 높였던 이가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장이었던 법타 스님이다. 남다른 동국 사랑을 품고 실천했던 스님은 2009년 3월부터

다.

그래서 물었다. “스님, 화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합은 소탐대실하지 않고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하심하면 됩니다. (자기가) 죽을 일 아니면 손해 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자라면 속물처럼 자기 이익 쫓아 일희일비하면 안됩니다. 우리 속담에 ‘마음이 맞으면 부처도 부러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하하”

법타 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원효 스님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크게 보면 그렇고, 뜻이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와 시시비비를 떠나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육화경(六和敬)을 설명했다. 육화경은 출가자가 수행 생활을 함에 있어 화합을 이루기 위한 여

처를 접했다. 책으로 만나는 불교는 지금까지 그저 절에 등 켜고, 스님이 탁발 다니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 여겼던 법타 스님에는 놀라운 일이었다.

어느 날, 친구와 청주 수도원(현 신용화사)을 찾았다. 도량을 기웃거리는데 법당에서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 포래의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다. 그러던 중 법타 스님은 한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스님 말씀(그때 스님은 ‘법문’이라는 단어도 몰랐다)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스님의 불교학생회 생활이 시작됐다. 미친 듯이 활동했다. 법타 스님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속리산 법주사로 대학생 선배들을 따라 수련회를 갔다. 오지 말라는 것을 스님은 ‘강’ 하나로 찾아갔다.

“선배들이 어리니가 오지 말라고 합니다. 도통하면 그만이지, 도통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한가 싶어서 혼자서 법주사를 찾아갔습니다.”

20여 일 수련회를 지내면서 법타 스님은 절이 좋아졌다.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스님은 후일 은사가 된 추담 스님에게 “스님이 되고 싶습니까?”라고 말했다.

추담 스님은 껌을 씹으면서 “중노릇 하면 좋지만 무식하면 안된다. 고교 졸업장을 가져와라”라고 말했다.

법타 스님은 집으로 돌아왔다. 청주상고에 진학해서도 불교학생회 활동은 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교회 장로가 교장이었던 학교였지만 스님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며 불교학생회에 학생을 모집했다. 특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 스님이라는 생각에 출가 전 사후부터 바르게 하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다.

거칠 것 없이 대범했던 고교생 법타 스님도 앞선 한 때가 있었다. 스님은 추담 스님이 청주 시내에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 시봉했다.

법타 스님은 “은사스님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스님이 된 것은 금생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회상했다.

고교 졸업식 날이 왔다. 스님은 오래전 추담 스님과의 약속대로 출가했다. 은사스님을 옆에서 시봉하니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때 추담 스님이 갑자기 속초 신흥사로 가게 됐다. 은사스님은 법타 스님에게 따라오지 말고 동국대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다. 은사스님과의 이별이 싫어 법타 스님은 울기도 많이 울었다.

은사스님의 말씀대로 공부해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출가 전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스님은 출가해서도 두각을 보여 백상원(동국대 학인스님들 기숙사)을 주름잡았다.

대학 시절, 군입대했던 법타 스님은 월남도 다녀왔다. 남들은 6개월 순환근무 하는 곳을 스님은 자청해 2년을 있었다. 그 곳에서도 스님은 부지런히 움직여 호국백마사를 세웠다.

스님은 “바르게 살자”는 말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당시 태고종 스님들이 머물던 내장사를 성진 스님과 함께 ‘정화’한 것도 바른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출가자의 화합법칙 ‘육화경’에 화합 비결 다 있어

수행은 개인 일이나 목적은 포교 밀거름 되기

동국대 정각원장을 맡고 있다.

나그네가 정각원 사무실을 찾았을 때 법타 스님은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정각원 법당. 휴식나 했던 집작은 역시나였다. 다수의 동국대 구성원처럼 스님도 하루의 시작을 정각원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스님은 “처음 정각원장에 부임했을 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는 신정사 사건으로 위신이 추락한데다 로스쿨 탈락까지 겹치며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교계에서는 내게 ‘본사 주지도 여러 번 지낸 중진스님이 무엇하러 동국대 정각원장을 하느냐’고 비아냥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약학대 선정은 제33대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종단·학교가 한마음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래 전 나그네가 한 선지식에 얻은 지식이 있다. 사람마다 강조하고 내세우는 부분이 그 사람의 단점·문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적인 경우 더 그렇다는 것. 청렴을 강조했던 이가 비리와 청탁 건에 연루되는 사건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인지 종단에서는 종단 출자 기여도를 배제한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권 등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고 있

섯가지 원칙이다. 불교에서는 오역죄(五逆罪)의 하나로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지목할 정도로 승가에서의 화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화공주(身和共住)는 몸으로 화합하는 공동체 의식을 말합니다. 가족이 한지붕 아래에서 한술 밥 먹고 살 맞대고 살면 화합의 길이 쉽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화무쟁(口和無諍)은 언어와 의사표시를 순화해 입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입을 화합하면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이어 법타 스님은 “뜻을 합쳐 행동을 함께 하는 의화동사(意和同事), 계율과 법집사에 따르는 계화동수(戒和同修), 서로 다른 견해를 인정할 줄 아는 견화동해(見和同解), 이익을 균등히 배분하는 이화동균(利和同均)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불자)의 경쟁상태는 이윤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계 내부에서 서로 이권 등을 놓고 다투어서야 되겠습니까?”

스님은 충북의 유교집안에서 맏내로 자랐다. 어려서 부터 몸이 약했던 법타 스님을 위해 어머니와 할머니는 부처님 오신 날이면 등을 밝혔다. 스님은 청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불교서적을

법타 스님은...
1965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사·석사를 마쳤다. 1969년 월남전 참전. 미국에서 ‘20세기 근세 북한불교에 관한 연구’로 종교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무원 총무부장, 불교신문 부사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소요산 자재암, 광주 원효사,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결성한 스님은 남북교류 사업에 앞장서 왔다. 2004년 만해대상을 수상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 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기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집약 완성

장소 •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 하차후 왼쪽 출구, 신영프라자 301호

입학일시 • 2010년 3월 15일 오후 1시 (공개강좌)

쉽다 **라마불교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34-5호 신영프라자 301호
본원 교학과 Tel : 031-502-5522 / 010-9005-4167